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10

아굽을 지켜주신 하나님

(창세기 27:41~31:55)

야곱에게 속아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기고 만 에서!
에서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씩씩... 야곱 이 녀석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저 눈엣가시 같은 녀석을 없애버리고 말테다. 썩썩...”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에서.

어머니 리브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도망가게 했죠.

**“야곱! 얼른 여기서 떠나거라 네 형이
너를 죽일지도 몰라.
지금 당장 하란 땅으로 가서 내 오빠, 그러니까
너의 외삼촌이지? 라반에게로 가거라.
거기로 피해 있으면 안전할 거야.”**

그렇게 야곱은 고향 땅을 떠나 홀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 먼 길을 밤낮으로 혼자 가야 한다니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고 엄마 아바바 생각에
눈물이 나기도 했죠.**

밤이면 길가에 있는 돌 하나를 베개로 삼아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청해야 했어요!

“아이고... 늑대가 주변에 있는 모양이구나
엄마, 아빠... 너무 무서워요... 보고 싶어요... ㅠㅠ”

울다 지친 야곱은 꿈을 꾸었어요.
높다란 사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아 있었는데
아름다운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사다리의 꼭대기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어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축복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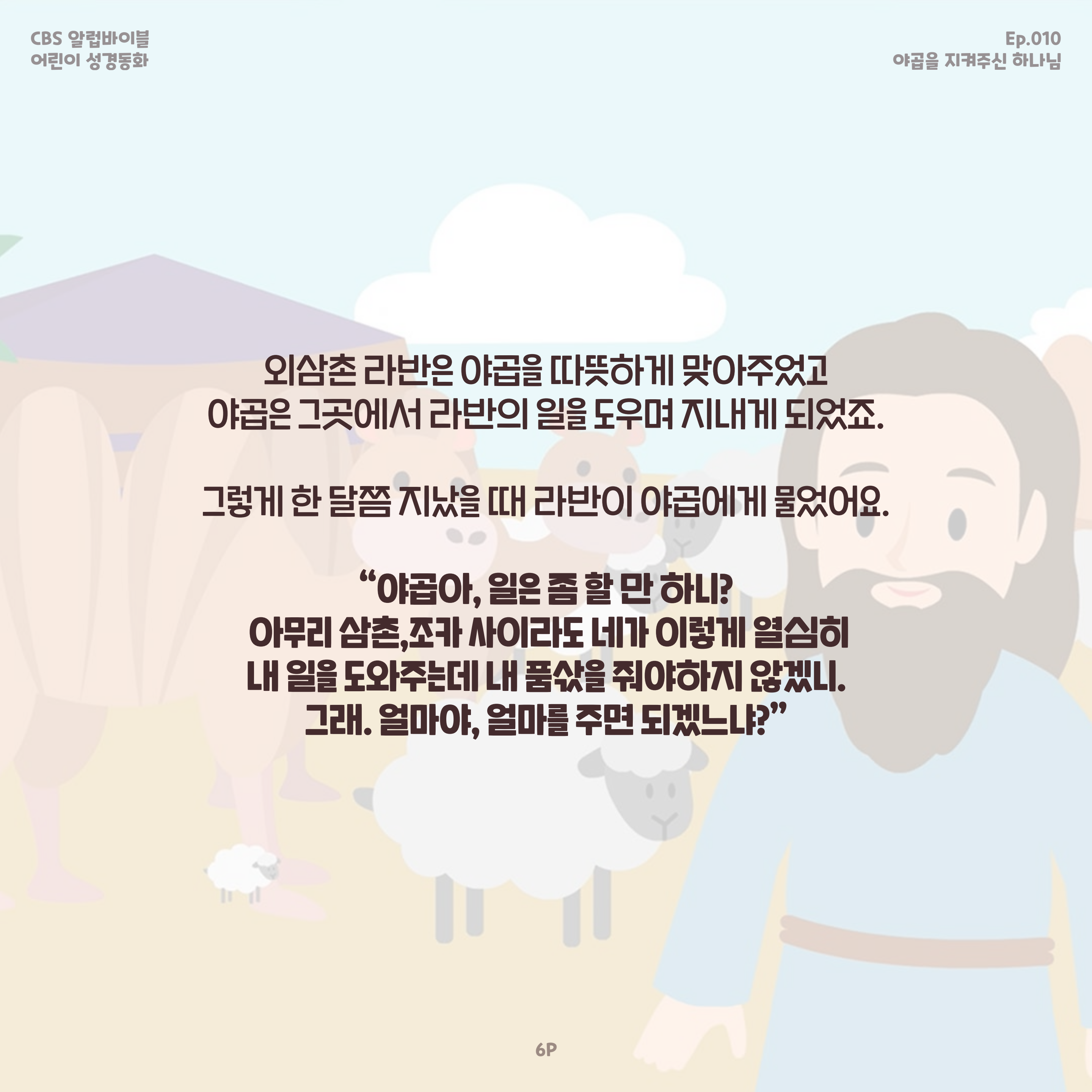
“어...어...어...!”

**야곱은 꿈에서 깨어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주위엔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그때부터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야곱은 자신에 베고 잤던 베개를 땅에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벧엘’이란 이름을 붙여주었죠.

그렇게 얼마나 더 길을 떠났을까
야곱은 마침내 하란 땅에 도착했어요!

“뭐라? 내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이 찾아왔다고?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구나! 어서 그 아이를 데려오거라.”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야곱은 그곳에서 라반의 일을 도우며 지내게 되었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라반이 야곱에게 물었어요.

**“야곱아, 일은 좀 할 만 하니?
아무리 삼촌,조카 사이라도 네가 이렇게 열심히
내 일을 도와주는데 내 품삯을 줘야하지 않겠니.
그래. 얼마야,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

친구들! 하지만 야곱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라반에게는 두 명의 딸,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야곱은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외삼촌! 저는 돈 필요없어요.
제가 원하는건 바로 ‘라헬’입니다.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신다면
앞으로 7년동안 외삼촌을 위해 열심히 일할게요!”**

**“뭐? 라헬을...?
허, 그래 좋다 다른 남자와 결혼시킬바엔
야곱 너에게 맡기는것도 좋겠지.
대신 7년 동안 내 밑에서 일하겠다는 그 약속.
꼭 지켜야 한다!”**

**우와... 1년 2년도 아니고 7년이라니!
야곱이 라헬을 정말로 사랑했나보요!
야곱은 라헬과 너무나도 결혼하고 싶은 나머지 힘든 줄도 몰랐어요.
7년이 마치 7일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마침내 7년이 지나고 앓된 얼굴의 야곱은
어느새 늙름한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야곱아, 이제 7년이 지났구나.
그동안 약속을 잘 지켜주었으니 라헬과 결혼을 시켜주겠다.”**

라반의 말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펄쩍펄쩍 뛰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외삼촌 라반은 사실 야곱을
속일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일 잘 하는 야곱이 자신을 위해 더 일해주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라헬 대신에 첫째 딸인
‘레아’를 결혼식에 보냈답니다.

당시에 신부의 얼굴은 베일에 가려져서 볼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이 다 끝나고 야곱이 신부의 베일을 들춰냈을 때
야곱은 놀라서 가무러칠 수밖에 없었죠.

**“아이 깜짝이야! 당신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잖아요!
나는 라헬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외삼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자 라반이 능글맞게 대답했어요.

**“워워, 야곱 화를 가라앉히려.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이 나라에선,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을 하는 건
법에 어긋난단다.
그러니 지금은 레아와 결혼을 하고 네가 나를 위해
7년을 더 일해준다면
그 때 약속대로 라헬과 결혼해도 좋다.”**

야곱은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이대로 라헬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7년을 더 라반을 위해 일하기로 했죠.

그리고 마침내 라헬과도 결혼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는 남자가 아내를 여러명 가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뒤로도 찌돌이 라반은 야곱을
이용해먹으려고만 했어요.
열심히 일한 야곱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품삯을 주는 방법도 매번 바꾸기 일쑤였죠.

“야곱, 이번 월급으로는 새로 태어나는 가축중에
반점이 있는 가축을 주겠다.”

“야곱, 이번 달에는 새로 태어나는 가축 중에
줄무늬가 있는 녀석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지만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베엘에서 약속하신대로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반점 있는 가축을 주겠다고 하면
반점 있는 가축이 태어나게 해주셨고
줄무늬 있는 가축을 주겠다고 하면 줄무늬있는 가축이 태어나게 해주셨죠.

하나님 덕분에 야곱의 재산은 날로 늘어났답니다!

그러자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샘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아버지! 야곱 저 녀석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차지하는데 이대로 두실 겁니까?”**

**“야곱이 모든 걸 가져가 버리면 저희는 뭘 물려받습니까?
야곱을 가만 두면 안 됩니다! 아버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챈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기로 했어요.

라반의 아들들은 고향으로 떠나는 야곱을 추격하기로 했죠.
이젠 라반도 야곱을 질투하기 시작했고
말을 타고 함께 야곱을 뒤쫓았어요.

**“아들들아, 거의 다 따라잡았다.
조금 더 힘내서 저 과심한 야곱을 잡아오거라!”**

“예 아버지! 이랴, 이랴!”

그렇게 야곱이 붙잡히기 바로 직전!

**하지만, 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편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신거죠.**

**“라반 내가 명령한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을 괴롭히지 말거라.
그냥 암전히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야곱은 다시 한번 위기를 넘겼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번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는거!
야곱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죠?**